

# 간호대학생의 성태도와 성지식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양영미<sup>1</sup>, 조미옥<sup>2\*</sup>, 백경화<sup>3</sup>

<sup>1</sup>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해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3</sup>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Effects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Young-Mi Yang<sup>1</sup>, Mi-Ock Cho<sup>2\*</sup>, Kyoung-Hwa Baek<sup>3</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seok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University

<sup>3</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C시와 H군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 대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SPSS version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지 감수성은 성태도( $r=.383$ ,  $p=.000$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태도( $\beta=.365$ ,  $p=.000$ )로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성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간호 대학생, 성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ttitude, sexual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analyze the effect on gender sensitivit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2.0 ver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gender sensitiv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xual attitude ( $r=.383$ ,  $p=.000$ ), and the factors affecting gender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were sexual attitude ( $\beta=.365$ ,  $p=.000$ ). In the future,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that can establish a correct sexual attitude in order to increase the gender sensi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Sexual Attitude, Sexual Knowledge, Gender Sensitivity, Nursing Student, Sexual Behavior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자유로워진 성문화가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2]. 2018년 하반기부터 이슈화된 'n번방', '박사방' 사건은 성착취물을 찍어 유포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60.7%가 10대 이하라는 사실과 실제 운영자는 주로 20대 대학생이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3]. 대학문화에 퍼져 있는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은 디지털 시대가 가져다준 역기능 중 하나로 누구나

\*Corresponding Author : Mi-Ock Cho([serena@hj.ac.kr](mailto:serena@hj.ac.kr))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 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지식을 갖게 되며, 이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4-6].

대학생 시기는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성교제와 성경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7,8], 건강한 성행동을 위해 바른 성지식과 올바른 성태도가 중요함이 강조되어왔다[1,5,6,9-11]. 대학생의 성지식 습득은 주로 대중매체가 46%, 친구 32.2%, 책 12.5%, 선생님 3.2%, 부모님 2.4% 순으로 공식적인 성교육 경로보다 흥미 위주의 대중매체와 친구를 통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성을 왜곡시켜 받아드릴 가능성을 높이고, 성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1].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12],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수록 성폭력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로 피해자의 고통을 높은 수준에서 인지하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대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1]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성 관련 범죄는 성차별과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여겨진다[14]. 이에 비교적 개방적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대학생 집단[6]에서 성태도와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연구로는 대학생의 인성, 창의성, 사회성, 자아존중감, 위력 성폭력 인식, 성지식, 피임태도와와의 관련성 연구[13-16],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중재연구[4] 등이 있다.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여러 학계에서 이루어진 성지식, 성태도에 대한 연구[1,5,6,8-11]와 성인지 감수성 연구[4,12-16]가 다수 있지만 아직까지 성지식, 성태도, 성인지 감수성의 관련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인지 감수성 구현은 조직 및 정책수준과 관련된 장벽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성별 격차가 내재되어 있는 현대의 보건의로 분야는 성별에 민감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성인식을 높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17].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예비간호사로서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알아보고 그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발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H군과 C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 산정 G Power 3.1.9를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를 4개 지정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수는 131명이었다. 자료수집 시 성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으로 인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23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적절한 자료 1부를 제외한 229부로 분석하였다.

## 2.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20HR38)을 받은 후 연구자가 온라인화상을 통해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2021년 2월15일부터 2월2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와 자료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거주형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은 여부, 부모님의 성태도, 이성교제 경험, 성관계 경험, 첫 성경험 시기, 첫 성관계 상대, 처음 성관계 상태, 피임여부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2 성태도

본 연구에서는 Ho[1]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쾌락유희적성 11문항, 혼전순결 7문항, 결혼관 7문항, 성 허용성 6문항, 동성애 5문항, 낙태6문항 등 5개 하부영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나타낸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6~.9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65~.94로 나타났다.

### 2.3.3 성지식

본 연구에서 성지식 측정도구는 Ho[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생식기 관련 7문항, 임신과 출산 관련 8문항, 성건강 관련 10문항, 성행위관련9문항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정답이면 1점, 오답이나 모르겠다로 표기한 경우는 0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 2.3.4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Lee[12]가 개발한 젠더감수성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정체성에 대한 개

방성 6문항 자기성찰 8문항, 비폭력 7문항, 성역할개방성 9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71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sion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각각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성태도, 성지식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분석은 Dunnett의 T3와 Tukey HSD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5)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 영향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88.6%(203명), 남학생이 11.4%(26명)으로 여학생이 많았고, 학년은 1학년 39.7%(91명), 2학년 17.9%(41명), 3학년 28.4%(65명), 4학년 14.8%(34명)으로 1학년과 3학년이 많았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은 학생은 82.1%(188명),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은 17.9%(41명)로 대부분 교육을 받았다. 종교는 무교가 50.7%(11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가 37.6%(86명)이었다.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73.8%(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취 18.3%(42명), 친구와 동거 4.8%(11명) 순이었다. 부모님의 성태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55.5%(127명)로 가장 많았고, 폐쇄적 27.9%(64명), 개방적이 16.6%(38명)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이성교제 경험은 과거에 사귀 경험 있으나

지금은 없는 경우가 43.7%(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사귀고 있는 경우는 34.5%(79명),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21.8%(50명)이었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48.5%(111명), 없는 학생은 51.5%(118명)으로 나타났다. 첫 성경험 시기는 대학교 시기 33.2%(76명)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4.4%(33명), 중학교 0.9%(2명)이었고,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51.5%(118명)으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상대와의 관계는 당시 교제하고 있는 상대가 45.4%(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첫 성관계가 어떠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은 서로 합의하에 41%(94명), 상대가 강하게 요구해서 4.4%(10명), 술에 취해서 2.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시 피임을 항상 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75.1%(172명)로 가장 많았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20.1%(46명), 거의 안한다가 4.8%(11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26(11.4)
	Female	203(88.6)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yes	188(82.1)
	no	41(17.9)
grade	1	91(39.7)
	2	39(17.0)
	3	65(28.4)
	4	34(14.8)
religion	Christian	86(37.6)
	Catholic	15(6.6)
	Buddhism	8(3.5)
	No religion	116(50.7)
	other	4(1.7)
Residence type	by own	42(18.3)
	with friend	11(4.8)
	with family	169(73.8)
	Boarding and Dormitory	6(2.6)
	Residence of relatives	1(0.4)
parents' sexual attitude	opened	38(16.6)
	middle	127(55.5)
	closed	64(27.9)
dating experience	present	79(34.5)
	not now but past	100(43.7)
	no experience	50(21.8)
experience of intercourse	yes	111(48.5)
	no	118(51.5)
first experience of intercourse	middle school	2(0.9)
	high school	33(14.4)
	college	76(33.2)
	no experience	118(51.5)

irst intercourse partner	boy friend or girl friend	104(45.4)
	One-time meeting partner	6(2.6)
	friend	2(0.9)
	no experience	117(51.1)
first intercourse motivation	with agreement and planned	94(41.0)
	Psychological anxiety	2(0.9)
	Drunk	5(2.2)
	Impulsive due to the medium	1(0.4)
	partner's begging	10(4.4)
	no experience	117(51.1)
Contraception	Almost not getting	11(4.8)
	Sometimes I do it and sometimes I don't	46(20.1)
	Always do	172(75.1)

### 3.2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정도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은 5점 만점에 2.99(±0.36), 성태도는 2.96(±0.27), 성지식은 33문항으로 각 1점씩 33점 만점에 22.20(±4.76)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sexual attitude, sexual knowledge, and gender sensitivity**

Variable	Sum		Item	
	Possible range	Mean (SD)	Possible range	Mean (SD)
Gender sensitivity	30~150	89.83 (10.71)	1~5	2.99 (.36)
Sexual Attitude	42~210	123.83 (11.64)	1~5	2.96 (.27)
Sexual Knowledge	0~33	22.20 (4.76)	0~1	0.67 (.14)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감수성 차이

간호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2.33, p=.021$ ),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6.23, p=.002$ ).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t=5.66, p=.000$ ), 첫 성경험 시기는 고등학교·대학교 때 경험한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0.92, p=.000$ ). 또한 첫 성경험 상대에서는 교제하고 있는 상대와 첫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혀 성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10.88, p=.000$ ), 피임 여부에서는 피임을 거의 안하

는 경우보다 불규칙적으로라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59, p=.004). 간호대학생의 성태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t=3.13, p=.002),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t=3.02, p=.003), 첫 성경험 시기가 고등학교일 때가 경험 없을 때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710, p=.012). 첫 성경험 상대는 당시 교제하고 있는 상대보다 일회성 미팅상대 일 때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98, p=.000). 성지식은 4학년이 1-3학년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지

식이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5.77, p=.000). 또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F=3.56, p=.030),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t=4.07, p=.000)보다 높아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첫 성경험 시기는 늦을수록 높았고(F=9.21, p=.000), 첫 성경험 대상이 없는 경우보다 이성교제 사이에서 경험 있을 때 유의하게 높았다(t=5.98, p=.001) 첫 성경험 동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05, p=.002)(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s (N=229)**

Characteristic s	Categories	Gender sensitivity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s	
		MeSD	t or F(p)	MeSD	t or F(p)	MeSD	t or F(p)
Gender	Male	94.38(10.53)	2.33(.021)*	130.42( 12.32)	3.13(.002)*	22.81(4.24)	.69(.491)
	Female	89.25(10.62)		122.98( 11.30)		22.12(4.82)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yes	89.30(10.23)	-1.61(.108)	123.80(11.58)	-.07(.951)	22.08(4.87)	-.82(.411)
	no	92.27(12.54)		123.93(12.05)		22.76(4.22)	
grade	1	89.29(9.80)	1.69(.175)	122.88(10.38)	1.60(.191)	19.77(4.64) <sup>a</sup>	15.77(.000)* a <b>b,c,d</b>
	2	87.23(11.53)		123.41(11.18)		23.67(3.44) <sup>b</sup>	
	3	91.86(11.07)		126.40(11.29)		23.75(3.34) <sup>c</sup>	
	4	90.38(11.10)		121.91(15.22)		24.06(5.94) <sup>d</sup>	
religion	christian	90.63(11.09)	1.99(.097)	122.64(11.53)	1.64(.165)	22.44(4.92)	.86(.486)
	catholic	92.13(6.58)		130.40(9.31)		22.80(4.75)	
	buddhism	97.88(12.69)		124.63(12.73)		24.63(3.20)	
	none	88.49(10.64)		123.97(11.87)		21.78(4.74)	
	other	86.75(4.50)		118.75(7.59)		22.25(4.35)	
Residence type	by own	93.36(10.60)	1.85(.121)	124.90(13.03)	.43(.786)	23.50(3.85)	1.94(.104)
	with a friend	92.27(11.53)		126.27(18.88)		23.91(3.27)	
	with family	88.73(10.72)		123.28(10.89)		21.74(4.98)	
	Dormitory	90.67(4.32)		126.17(6.27)		22.00(4.43)	
	Residence of relatives	96.00( . )		130.00( . )		28.00( . )	
parents' sexual attitude	opened	90.89(10.67)	.92(.400)	127.00(12.65)	1.71(.184)	23.05(4.05)	1.06(.350)
	middle	88.97(11.19)		123.24(11.53)		21.83(4.82)	
	closed	90.91(9.73)		123.09(11.12)		22.42(4.99)	
dating experience	present	92.70(11.46) <sup>a</sup>	6.23(.002)* a > b	125.84(10.98)	2.92(.056)	23.22(4.23) <sup>a</sup>	3.56(.030)* a > b
	not now but past	89.44(9.99)		123.75(12.88)		22.00(4.84)	
	no experience	86.08(9.77) <sup>b</sup>		120.80(9.38)		21.00(5.12) <sup>b</sup>	
experience of intercourse	yes	93.70(9.85)	5.66(.000)*	126.18(12.22)	3.02(.003)*	23.48(4.10)	4.07(.000)*
	no	86.19(10.24)		121.61(10.66)		21.00(5.04)	
first experience of intercourse	middle school	91.00(4.24)	10.92(.000)* c(a,b)	123.50(10.61)	3.71(.012)* a > b	18.00(4.24)	9.21(.000)* a)b, b)c
	high school	92.45(8.48) <sup>a</sup>		128.52(11.73) <sup>a</sup>		21.79(4.36) <sup>a</sup>	
	college	94.32(10.49) <sup>b</sup>		125.24(12.46)		24.36(3.65) <sup>b</sup>	
	no experience	86.19(10.24) <sup>c</sup>		121.61(40.66) <sup>b</sup>		21.00(5.04) <sup>c</sup>	
first intercourse partner	boy friend or girl friend	93.55(9.86) <sup>a</sup>	10.88(.000)* a > b	125.30(11.83) <sup>a</sup>	6.98(.000)	23.50(4.11) <sup>a</sup>	5.98(.001)* a > b
	One-time meeting partner	94.50(10.10)		141.33(9.98) <sup>b</sup>		22.83(4.36)	
	friend	98.50(9.19)		120.00(12.73)		25.50(0.71)	
	no experience	86.14(10.27) <sup>b</sup>		121.68(10.67) <sup>c</sup>		20.96(5.04) <sup>b</sup>	

\*p<.05

(Continued)

Table 3. Difference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s (N=2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sensitivity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first intercourse motivation	with agreement and planned	94.06(10.13)		125.89(12.44)		23.59(4.06)	
	Psychological anxiety	95.50(4.95)	6.82(.000)*	124.50(6.36)	2.07(.070)	26.50(0.70)	4.05(.002)*
	Drunk	94.60(8.65)		131.00(7.10)		22.00(4.74)	
	Impulsive due to the medium	91.00		134.00		28.00	
	partner's begging	89.70(8.19)		125.00(13.39)		22.30(4.14)	
no experience	86.13(10.26)	121.61(10.70)		20.97(5.04)			
Contraception	Almost not getting	88.45(13.49) <sub>a</sub>	5.59(.004)* a < b	122.91(10.19)	.73(.482)	22.55(4.18)	.72(.491)
	Sometimes I do it and sometimes I don't	94.46(9.64) <sub>b</sub>		125.67(11.79)		22.91(4.15)	
	Always do	88.68(10.52)		123.39(11.70)		21.99(4.76)	

\*p<.05

3.4 대상자의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은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r=.383, p=.000)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Gender sensitivity,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s (N=229)

	Gender sensitivity r(p)	Sexual Attitude r(p)	sexual Knowledge r(p)
Gender sensitivity	1		
Sexual Attitude	.383(.000)	1	
sexual Knowledge	.096(.145)	.004(.956)	1

### 3.5 대상자의 성인지 감수성 영향요인

간호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먼저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874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차한계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20.88, p=.000), 모형의 설명력은 14.8% 설명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태도( $\beta = .365, p=.000$ )로 확인되었다 (Table 5).

Table 5. Gender Sensitivity, Sexual Attitude, Sexual Knowledg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haracteristics	B	SE	$\beta$	t	p	Adj R <sup>2</sup>	F
constant	41.443	7.622		5.437	.000		
Sexual Attitude	.352	.056	.365	6.266	.000	.148	20.877
sexual Knowledge	.214	.138	.100	1.556	.12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확인하고 성태도, 성지식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태도는 210점 만점에 평균 123.8점으로 우근희[10]의 연구에서 성태도가 93.03점으로 나온 것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의 자유로워진 성문화가 성태도에 변화를 가져다준다는[1]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결과이다. 반면 김남희[6]가 보고한 대학생의 성태도 126.6점보다는 본 연구가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t=3.13, p=.002), 남학생의 비율이 11.4%로 여학생에 비해 아주 적은 비율이 가져다준 결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성태도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1,6,10].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성태도는 첫 성경험 시기(F=3.71, p=.012)가 고등학교 시기인 경우, 성파트너가 교제 중 이성인 경우보다 일회성 만남인 경

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F=6.98, p=.000$ ). 반면, 조영미 [14] 연구에서는 성태도와 첫 성경험 시기, 성파트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성태도에 대한 김남희 [6]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성경험을 했을 시에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근희 [10] 연구에서도 성경험이 있는 경우 성태도가 개방적이었고, 김상희 [20]의 남자 대학생의 성태도 연구에서는 성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성경험이 없는 남학생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성태도는 성별에 따라, 첫 성경험 시기, 성파트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성교육시 성별에 따른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전에 첫 성경험 시기 및 성파트너를 고려하여 대상자에 맞는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성지식은 33점 만점에 평균 22.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남희 [6]의 15.6점, 구상미 [8]의 21.8보다는 높고, 조영미 [14]의 27.0점 보다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건강간호학에서 성관련 지식을 배운 3, 4학년 43.2%(99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1, 2학년이 56.7%(130명)로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성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 $F=15.77, p=.000$ )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는 조영미 [14]의 연구에서 성지식이 학년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동일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저학년에 전공기초로 해부생리학, 병리학을 선수학습하고, 고학년에 전공심화로 여성건강간호학 및 성인간호학을 학습함으로써 지식이 확장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지식이 이성교제 경험과( $F=3.56, p=.030$ ), 성경험이 있는 경우( $F=4.07, p=.000$ ), 첫 성경험 시기가 대학생 시기인 경우( $F=9.21, p=.000$ ), 첫 성경험 상대가 교제 중 이성인 경우에서( $F=5.98, p=.001$ )도 성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조영미 [14] 연구에서 첫 성경험 시기가 고등학생 시기일 때 성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혜경 [18] 연구에서는 성지식이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의료인으로서 인간의 성에 대해 완

전하게 이해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최적의 환자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향상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1] 기대할 수 있기에 성지식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간호대학생들이 성지식을 간접적인 경로인 대중매체나 친구, 잡지를 통해 습득하기 보다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성지식 습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150점 만점에 89.83점이었으며, 문항점수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나타났다. 조영미 [14]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3.29점, 권희정 [19]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성인지 감수성 평균점수는 3.85점, 주경숙 [15]의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연구에서는 3.20점으로 본 연구결과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본 연구의 성인지감수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t=2.33, p=.021$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88.6%는 여학생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에 본 연구의 성인지 감수성이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나온 이유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일반적 특성은 대부분 성별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 선행연구 대부분의 결과는 [14, 15, 19]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에도 연령과 학년에서 [14, 19]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외에도 이성교제 경험, 첫 성경험 시기, 첫 성경험 상대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경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았고 ( $F=3.56, p=.030$ ), 첫 성경험 시기가 대학생인 경우 ( $F=9.21, p=.000$ ), 첫 성경험 상대가 교제 중 이성인 경우 ( $F=5.98, p=.001$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허용성이 낮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 [19]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첫 성경험시기가 대학생일 때와 첫 성경험 상대가 교제 중 이성인 경우가 높은 것은 자율적으로 이성교제와 성경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7, 8], 성인지 감수성에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성에 대해 개방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성지식을 통해 바른 성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성별과 개인의 성경험을 포함한 성교육을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2].

본 연구에서 성태도가 성인지 감수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성태도로 나타났다.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에 대한 바른 태도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은 간호대학생에게 향후 임상에서 대상자를 간호하고, 성 상담가로서 더 효과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22,23]. 본 연구결과들은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을 위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태도를 먼저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성태도,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이 성별,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하여 이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기에 현대사회의 성개방과 자율성에 따라 간접매체를 통한 교육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중재연구를 제안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지식이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H군과 C시에 있는 간호대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태도는 123.83점( $\pm 11.64$ ), 성지식은 22.20점( $\pm 4.76$ ), 성인지 감수성은 195.17점( $\pm 34.59$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성태도와 성인지 감수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성경험이 학령이 낮을수록, 첫 성경험 상대가 교제중 이성인 경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설명력은 14.8%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S. M. Ho.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Hanyang University. Seoul.
- [2] H. S. Chang & H. G. Cho. (2001).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179-203.
- [3] *Room n Incident-Wikipedia, the encyclopedia of all of us.(2021)* <https://ko.wikipedia.org/wiki>
- [4] J. W. Jeong & E. N. Lee. (2018). Gender Training to Enhance University Students Gender Sensitivity - Focusing on Womens Studies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5), 11-35.
- [5] S. Y. Bae, S. J. Kim, H. J. Jang, E. M. Jang, J. E. Lee & M. Kwon. (2014). The differenceds of sexual knowledge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based on the smartphone of university student. *Theses collection*, 28, 10-111.
- [6] N. H. Kim, Y. J. Park & H. S. Jung. (2015).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7(2), 17-42.
- [7] K. R. Shin, H. J. Park & K. E. Bae. (2010).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22(6), 624-633.
- [8] S. M. Koo & H. J. Kim. (201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1-11, DOI : 10.14400/JDC.2017.15.12.1
- [9] Y. S. Ko. (2001).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0] G. H. Woo. (2011).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11] J. H. Kim & K. S. Kim. (200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1), 123-138. <http://familywelfare.net>



- [12] J. Y. Lee. (2011). *A Study on Developing Gender Sensitivity Measure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3] S. H. Kim et al. (2019).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Gender Sensitivity on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in Positions of Power Imbalance. *Korean Police Research*, 18(4), 3-36.
- [14] Y. M. Cho & J. Y. Lee. (2020).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Gender Suscept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9), 221-228.  
DOI : 10.14400/JDC.2020.18.9.22
- [15] K. S. Joo, J. P. Lee & K. M. Kim. (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it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6), 213-229.  
DOI : 10.22251/jlcci.2020.20.6.213
- [16] E. J. Seo, S. J. Jeong, J. J. Youn & R. Y. Jeon. (2020).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Gender Sensitivity in University Students upon Creativ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2), 71-87.  
DOI : 10.22251/jlcci.2020.20.12.71
- [17] C. Halime, A. L. M. Toine, G. A. M. Widdershoven, & A. A. Tineke. (2011). Bringing gender sensitivity into healthcare practice: A systematic review.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84(2), 143-149.  
DOI : 10.1016/j.pec.2010.07.016
- [18] H. K. Kim. (2017). Effect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n the Sexual Cop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8(1), 31-42.
- [19] H. J. Kwon & S. J. Shin. (2020). The Effect of Adolescent Sexual Media Literacy and Sexual Permissivenes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4(1), 22-34.  
DOI : 10.5932/JKPHN.2020.34.1.22
- [20] S. H. Kim & W. C. Yoon. (2012).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48-257.  
DOI : 10.5932/JKPHN.2012.26.2.248
- [21] B. Lmen et al. (2020).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of medical students concerning sexual matters. *Pan Afr Med J*, 29:35:141.  
DOI : 10.11604/pamj.2020.35.141.12910.
- [22] R. S. Mckelvey, J. S. Webb, L. V. Baldassar, S. M.

Robinson, G. Riley. (1999). Sex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among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Aust N Z J Psychiatry*, 33(2), 260-266.  
DOI : 10.1046/j.1440-1614.1999.00549.x

- [23] M. Miers. (2002).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Gender Sensitive Care: Exploring Concepts and Knowled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0(1), 69-77.  
DOI : 10.1046/j.1365-2648.2002.02341.x.

### 양 영 미(Young-Mi Yang)

[정회원]



- 2011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임상간호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노인간호, 재활간호
- E-Mail : debora69@bu.ac.kr

### 조 미 옥(Mi-Ock Cho)

[정회원]



- 2004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조기진통, 조산, 여성간호
- E-Mail : serena@hj.ac.kr

### 백 경 화(Kyoung-Hwa Baek)

[정회원]



- 200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심혈관질환자 간호
- E-Mail : khbignite@gch.ac.kr